

월요광장



임몽택  
미네르바 코칭엔셀링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진리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공포나 분노 또는 희망을 자극하는 주장이 진실이나 증거에 따른 주장을 압도하는 사회,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객관적인 논리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취급되는 사회, 불편한 진실이나 반대 의견은 무조건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사회, 진실이 객관적인 평가보다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집단충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를 우리는 탈진실(post-truth) 사회라 부른다.

탈진실이란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다. 즉 탈진실이란 시간상으로 진실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존재와 가치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탈진실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정치적 스캔들과 부패, 그리고 포퓰리즘 등으로 정부, 주요 미디어, 전문가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 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념적 차이로 극단적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불편한 사실은 편견이나 가짜로 치부하고, 진실을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의견의 문제로 재구성하여 진실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려는 시도들이 늘어

탈진실(post-truth)에 대하여

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 저널리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언론인 감축, 기관 통폐합, 탐사 저널리즘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대중의 고품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안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들의 검증되지 않은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실 보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퍼져 나가고 있는 것도 탈진실의 심각성 인식에 한몫했다.

탈진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존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편향적으로 추론한다. 사람들은 결국 에코 챔버(echo chamber)와 필터 버블(filter bubble)에 갇혀 객관적인 진실의 개념을 거부하고 진실 혹은 거짓은 주관적이거나 사회적 구성개념이라는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진실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관점의 문제로 변한다.

탈진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다. 정치적 논쟁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적 자극을 유발하는 발언이 여론을 더 크게 움직이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갈등이 극단화되어 ‘내 편’의 정보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대 편’의 정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신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강화되면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접하게 되어 반대 의견이나 객관적 사실과는 점점 멀어지는 인지적 편향이 강화되고 있다.

근래 들어 자칭 전문가와 유튜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학적 검증 없이도 대중의 감정에 부합하기만 하

면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현상이 탈진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어도 탈진실을 더 가속화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소리(bullshit)’다.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인 도덕철학자 프랭크 파트의 견해에 따르면 개소리란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듣는 사람의 인상이나 감정을 겨냥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말이다.

예컨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내뱉고 보는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이유를 들며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의 말, 전공도 아니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아는 체하는 자칭 식자(識者)들의 빈 소리, 슈퍼챗을 겨냥한 유튜버들의 검증되지도 않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이 모두 개소리다. 프랭크 파트는 자신의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에서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지만 개소리쟁이는 진실을 의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보다 개소리쟁이가 진실에 더 큰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보편적 진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개소리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며, 책임감 있게 생산하고 공유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된 대화 채널을 만들고 다원적 시각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정보는 확인하고 공유해야 하며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콘텐츠 검열이나 사용자 경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잠을 며칠 섰다.  
오월이 오면 조강일 친구가 생각한다. 광주 진흥고 동창이다. 망월 묘지에 누운 그를 막걸리 몇 잔으로 사갑(死甲)을 대신했다. 교회 등사기를 빌려 오월의 진실을 알리려다 집까지 추적해 온 형사들의 눈을 피해 부산으로 합평으로 피신했던 그 친구의 형형한 눈망울이 선하다. 5·18이 끝나고 교실에서 만난 그는 조용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술하게 고문을 당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그랜 몰랐다. 1986년 스물넷, 그는 결국 육신을 이기지 못했다.  
그가 죽고 오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생전 그의 모습이 너무 또렷해서 오랫동안 자괴감에 시달렸다. 미안하다. 오월이 되면 교실에 무력하게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나를 붙잡는다. 1980년 고2 때였다. 그 맑고 선한 그의 눈빛은 45년이 흐른 지금 고등학생 제자들의 눈빛으로 되살아나서 반짝반짝 다가온다.  
녀석들은 오월이 되면 광주보다 스승의 날을 먼저 기억한다. 전화나 문자가 온다. 맺은 찾아뵙겠다는 걸, 거들 사양하고 혼자 오월을 맞이한다. 새 학기마다 새로운 만남, 수많은 만남은 희망이자 자량이고 삶의 에

미안하다

너지였다. 그 속에 이별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알고 나니 만남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 보면 교직은 천직이 아니라 극한직업이다.

교사라는 직분으로 세상 모르는 이가 세상을 가르쳤으니 실수투성이였다. 성적 중심의 광풍이 한바탕 지나갔고 그 속에서 나도 회오리쳤다. 한 반에 50명이 훌쩍 넘었으니 사건도 많았다.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개인 인권은 무시되었다. 자율학습은 자율이 없었고, 야간 학습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까지 모두를 강제 등록시켰다. 나도 오월을 망각한 작은 독재자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못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거듭 미안할 뿐이다.

이젠 어른이 되었건만, 어디서든 “선생님!”하고 달려든다. 하지만 그들에 비해 내 기억은 형편없다. 고작 몇 년도 졸업생이고, 답임은 누구였고 반장이 누구였는지 나 확인하고 헤아리면서 나는 꼭 이 말을 잊지 않는다. 미안하다. 그리고 조강일 친구처럼 험한 세상을 살지 말고, 좋은 세상에서 잘 살라며 등을 토닥여 준다.

졸업식 노래가 그치기도 전에 교정을 박차고 나갔던 녀석들, 이제나마 따뜻한 포옹, 따뜻한 이별을 보낸다. 나이를 먹고 보니 만남보다 더 소중한 걸 깨닫는다. 아름다운 이별 말이다.

5월은 온통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달이다. 어버이날은 돌아가신 선친을, 스승의 날엔 옛 선생님들이 그리워진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던 꼬마 아이도 지난한 45년이 지났으니 벌써 그때 그 아버지 나이가 되었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젊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던 부모도 45년을 더했으니 지금은 구운 노

인이거나 상당수 고인이 되었다.

조강일 친구 아버지는 당시 집 주소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리울 만 눈물 받으니 사진 노인을 위로하려다 흑역 고통을 줄까 싶어서 전화를 더는 하지 못했다. 죽은 자식을 두고 사는 이의 고통을 누가 알까. 죽음도 그리움을 어찌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죽으면 그리움만이라도 끝났으면 좋겠다.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흔히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한다. 한 갑자를 넣고 나니 그 의미를 조금 알겠다. 젊은 날 아무리 국어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어도 그 푸듯푸듯한 청춘들이 어찌 이 문장의 깊이를 헤아렸겠는가. 떠오른 햇살보다 지는 노을이 백배 천배는 더 아름다워 보인다.

돌아보면 제자들이 어른이 되었고, 지금은 그 녀석들의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주변 사람들 상당수도 세상에 서 증발했다. 인생은 한바탕의 꿈! 그 꿈을 이루었건 못 이루었건 서쪽 하늘에 아름답게 노을이 지도록 5·18 가 해자들, 공수부대원들, 고문했던 이들 모두 미안하다고 진실로 사죄하고 그 무게를 털고 갔으면 좋겠다. 그제 내 친구 조강일은 물론 오월 광주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본인에게도 아름답고 가장 예쁘게 헤어지는 길이 아닐까.

이별은 누구나 슬프고 누구나 간다. 그 고통이 아물도록 폭력을 가했던 이들이 먼저 다가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가면 좋겠다.

미안하다. 곰곰이 친구 생각, 인생 생각으로 잠 못 드는 오월이다.

社說

오염 지표 속여 건강권 뺏개친 환경당국

광주시 등 환경당국이 급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 측정 지표를 편의적으로 해석해 공개한 것은 시민 건강권을 저버린 행위다. 화재 당시 시커먼 연기가 광주 상공을 뒤덮었는데 환경당국은 대기오염 측정 결과 ‘안전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시민들을 위해 환경에 노출시켰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급호타이어 화재 직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측정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했다. 당시는타이어공장의 대형 화재로 시민들이 불안감에 외출을 자제하던 상황으로 환경당국의 ‘안전하다’는 신호에 외부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

하지만 환경당국이 제시한 대기오염 측정 지표는 고용노동부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고시한 지표인데다 일반 작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노약자 등이 포함된 시민들에게 적용해선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간 공개하

는 대기정보시스템을 보면 화재 발생일인 17일 호남권의 대기 중 납과 니켈 성분은 1년 평균값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으로 측정돼 광주시 등 환경당국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납과 니켈 성분은 신경계와 호흡계 계통에 치명적인 중금속이자 발암 물질이다.

광주시 등 환경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어긋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환경당국이 부적합한 대기오염 지표라는 것을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다는 데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환경당국의 최우선 의무이다. 환경당국은 당장 민간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었다면 단호하게 몰아야 할 것이다.

쑈쑈한 법적 장치로 보험사기 근절해야

처벌 강화에도 재정을 축내는 보험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탁해 점점 조직화·지능화 되는 것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2년 33억7859만원이던 적발 금액이 지난해 51억3695만원으로 2년 만에 52%나 급증했다.

보험사기의 절반이 넘는 58%가 병·의원의 진단서를 위·변조해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라는 점은 병원 관리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아버지 등 환자 7명을 모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도 60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불경기 속에 고객 알바를 내세워 보험 사기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아 솔깃

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자제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사기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벌 강화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이다. 보험업 종사자가 사기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많은 데도 적발할 경우 행정 제재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만큼 쑈쑈한 장치를 마련해 근절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 명단을 공표하고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과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의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無等鼓

제21대 대선(6월 3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경연이 치열하다. 대선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가적 대사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파면으로 치러지는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대선이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를 찍을 것인지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했겠지만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후보물로 선거 벽보와 집으로 배달되는 인쇄물이 있

보가 초청됐다. 1차 토론은 지난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은 23일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펼쳐졌다.

기대만큼 TV 토론이 폭격 있고 생산적이었다는지, 후보들의 정치 철학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비전과 정책, 대안 토론보다 상대를 꺾아내려는 데만 집중하는 후보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장학퀴즈나 나올 법한 문제를 끌어들이 어쭙잖은 지식을 과시하거나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

는 듯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TV 토론은 말싸움 대화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화면에 비치는 후보를 통해 인격과 태도, 겸손을 본다. 그것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진정성있게 귀를 기울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다. 물론 토론 내용과 자체 모두 좋다면 급상징화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토론자의 태도를 통해 그 후보가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TV 토론

기 고



이상길  
법무법인 감동으로 대표 변호사

바야흐로 5월이다. 신록이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한 해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극과 저항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다. 바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5·18은 단순한 지역적 비극이 아니었다. 당시 군부의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움직였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며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했다. 광주는 외롭게 고립되었다. 언론은 진실을 숨겼고 국가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거리마다 탱크가 밀려오고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가해졌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그들은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은 이 외침을 빨갱이의 폭동으로 왜곡하며 진압했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문당하며 쓰러졌다. 그러나 그 비극은 역사의 한 줄로 끝나지 않았다. 오

5월, 광장, 그리고 다시 투표

히려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태동했다는 증거가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5·18은 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형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계획한 내란은 그 사실을 다시 증명해주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단순한 상상이나 계획이 아니었다. 실제 일부는 실행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군과 경찰이 움직였고 계엄령 발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움직임과 국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의 민낯이 날날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 어둠을 막아낸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국회 앞, 헌재 앞, 거리와 광장으로 나선 이들이 또 한 번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군과 경찰이 시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나라의 주권을 지켜낸 건 결국 국민의 용기와 연대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 분노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무기, 바로 투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되살아난다. 1980년 광주

의 절규, 1987년 거리의 외침, 그리고 2024년 겨울의 분노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제 그 다음 장을 완성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다.

내란의 책임자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또 다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이 모든 시도에 단호한 ‘아니오’를 외쳐야 한다.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그 형태를 바귀, 이제는 투표소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한 표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계승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책임이자 약속이다.

기억하라. 저항하라. 그리고 투표하라. 피로 세운 민주주의는 당신의 투표로 완성된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선물처럼 내려준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외면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권리는 피 흘린 누군가의 삶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럼에도 오늘날, 누군가는 그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거추장스러운 절차झ으로 여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려 할 때마다 깨어 있는 시민이 이를 막아왔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주의는 기억과 투표 위에 존재한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다. 부디, 당신의 한 표가 이 싸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  | 편집국장 崔權一                  |  |
| 제작국장 柳濟寬                                     |  |                           |  |
|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                                         |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  |
| 〈대표 FAX 222-4918〉                            |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  |
| 편 집 부 220-0649                               |  | (FAX 222-8005)            |  |
| 문 화 부 220-0624                               |  | (FAX 222-0195)            |  |
| 정 치 부 220-0634                               |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
| 예 향 부 220-0692                               |  | 업 무 국 220-0551            |  |
| 경 제 부 220-0648                               |  | (FAX 222-0195)            |  |
| 여 론 매 체 부 220-0661                           |  | (FAX 222-0195)            |  |
| 사 진 부 220-0693                               |  | 디 자 인 실 220-0536          |  |
| 디 지 털 부 220-0697                             |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                                              |  | (FAX 02-773-9335)         |  |
|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